

구로구의회 제299회 신축년 첫 임시회 개최

17일~ 26일...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조례안 등 처리

구로구의회(의장 박동웅)가 2월 17일 오전 10시 이성 구청장과 국·소장을 출석 시킨 가운데 제299회 신축년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회기는 오는 26일까지 10일간이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9일 제298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위원장 조미향)를 열어 제299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9회 서울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회계연도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서울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2021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처리했다.

새해 첫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 첫날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9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국별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5일에는 지역 현안사항을 살피고자 개별 현장의정활동을 진행하며, 상임위 기간 논의된 안건은 마지막 날인 26일에 제2차 본회의에서 최



구로구의회가 지난 17일 오전 10시 이성 구청장과 국·소장들을 출석 시킨 가운데 제299회 신축년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회기는 오는 26일까지 10일간이다. <사진은 개회식 전 2021년 1월1일자로 승진과 전보된 과장들의 인사를 받고있다>

종 처리된다.

한편, 이번에 상정되는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로 제출된 ▲서울시 구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립 청소년공방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리봉 구시장부지 주차장 복합시설 건립 ▲광명시자원회수시설 신축 추진을 위한 광명시·구로구

공동이용 기본협약 체결 동의안과, 복지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서울시 구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시 구로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공동 우신빌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서울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등 총 14건이다. <김유권 기자>



서울오늘신문

서울오늘신문을 검색 하시면 많은 기사를 보실수 있습니다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

18일 현재 '해적집' 34명 등 1주일새 130여명 늘어

관내 누적 확진자 총 980명... 사망자 9명

서울시 전체론 2만6천927명... 사망 362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수도권 '거리두기'가 지난 15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졌는데도 확진자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현재 구로구 관내 확진자는 오류1동 '해적집 헬스클럽' 34명과 가족간 감염으로 누적 확진자가 모두 980명으로 일주일새 130여명이 늘어나는 등 폭증세를 보여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있다.

<관련기사 3·7면>

요즘 관내 확진자 발생현황을 보면 11일 25명을 비롯, 15일 15명, 16일 12명, 17일 11명, 18일 18명 등 매일 10~25명사이로 급증하고있다.

현재 누적 확진자는 모두 980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현재 사망 9명, 778명이 완치 퇴원, 193명이 치료중이다. 자가격리자는 국내접촉자 643명, 해외입국자 253명 등 모두 896명이다.

한편 구로구민의 감염경로별 확진자를 보면 오류1동 '해적집 헬스클럽' 관련 34명,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 관련 44명, 구로콜센터

관련 20명, 구로동 A아파트 관련 11명, 중국동포센터 관련 11명, 만민교회 10명,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9명, 강서구 개척교회 관련 6명, 관악구 리치웨이 관련 5명, 타시군구 접촉자 488명, 해외 입국 7명, 기타 31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서울시 전체 확진자는 18일 현재 모두 2만6천927명으로 사망자는 362명이다.

구청별로 보면 ▲강서구가 제일 많은 1,616명 ▲송파구가 1,502명 ▲관악구 1,292명 ▲강남구 1,229명 ▲노원구 1,152명 ▲성북구 1,152명 ▲중랑구 1,132명 ▲동작구 1,111명 ▲은평구 1,085명 ▲서초구 1,039명 ▲양천구 1,018명으로 11개구가 1천명을 넘어섰다. 이어 ▲영등포구 995명 ▲구로구 980명 ▲동대문구 973명 ▲마포구 923명 ▲강동구 857명 ▲도봉구 829명 ▲서대문구 719명 ▲강북구 710명 ▲용산구 688명 ▲성동구 669명 ▲광진구 656명 ▲종로구 549명 ▲금천구 439명 ▲중구 418명을 기록하고 있다.

<채홍길 기자>

회원님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출자금 배당 안내

배당률 4.0%

2021년도 배당금 지급이 확정 되었습니다

이 사 장: 김석규

부이사장: 구자광

이 사: 최대성 양운목 김수업 신현모 공환주

최운호 표창인 박상수

감 사: 이학범

MG구로2동새마을금고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로28길 17 ☎02-853-1660~1



區有재산 임대료 50% 감면해준다

구 소유상가 입점 점포 17곳... 1월부터 6개월간 인하

구로구가 구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구가 소유한 상가의 임대료를 인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조례 개정 없이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로구는 구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상가에 입점한 점포 1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총 2488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해줬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올해도 임대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개최하고 임대료 경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시설관리공단 관리

상가 입주점포 17곳이 올 1월부터 6월까지 점포당 16~48만원씩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신은옥 재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6개월간 총 2981만원의 임대료를 경감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 등 소속 의원들이 지난 16일 신도림 선상역사 내 ‘문화철도959’ 방문, 현장 의정활동을 벌였다.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 임시회 대비 현장활동

신도림 선상역사, 안양천 일대 체육시설 점검

구로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박종여 위원장을 포함한 이재만 부위원장, 조미향, 박평길, 정형주, 이명숙 의원은 지난 16일, 신도림 선상역사 내 ‘문화철도959’와 안양천 일대 체육시설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299회 임시회를 앞두고 소관 위원회의 주요 사업 시설들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 현황과 시설물을 점검하고 현안사항과 애로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으며, 구청 관련 부서와 현장 관계자가 자리를 함께했다.

먼저, 위원들은 신도림역 선상역사 2·3층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인 ‘문화철도959’를 방문하여 현장 관계자로부터 시설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돌아본 후, 문화공간 이용에 대한 실태와 코로나19로 인한 애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579.8㎡ 규모의 ‘문화철도959’는 2층 키즈카페, 3층 문화센터와 예술창작소 등으로 조성되어 현재 구로문화재단에서 위

탁·운영중이다.

이후, 위원들은 안양천으로 이동하여 지난해 12월 고척교 인근에 조성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맞은편 리틀야구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현안사항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 관계자에게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이용자들의 안전과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현장활동을 마친 박종여 행정기획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에서 수집한 정보들은 제299회 임시회 업무보고와 안전 심의 등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하며 “문화공간과 체육시설은 구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여가공간이므로 많은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부동산중개업소 올해도 임대료 인하 중재

임차인 대신 임대료 인하 부탁, 중개수수료도 20% 할인

임대료 50건 6400만원, 수수료 할인 35건 620만원 성과

구로구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임대료 인하 중재에 나선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들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업을 연장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착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부동산중개업소가 직접 말하기 어려운 임차인들을 대신해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를 부탁하고 중개수수료도 20%를 깎아주는 사업이다. 고통 분담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자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의 제안으로 지난해 시작됐다.



구로구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도 임대료 인하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해 4월 구로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지회장 김진국)는 ‘착한부동산중개업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후 현재까지 120여 개 업소가 ‘착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으

로 임대료 인하 50건 6400만원, 중개수수료 할인 35건 620만원 등 총 7020만원의 감면 성과를 달성했다.

구로구는 ‘착한 부동산중개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업소에 방역물품과 인증 스티커를 지원하고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 ‘스마트서울맵’ 사이트에 참여 업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에 대한 위치정보 서비스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착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개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860-2627) 또는 이메일(witch372@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김학신 부동산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생을 위해 고통을 분담해준 임대인들과 착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구청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70억 저리 융자 지원

중소기업 최대 2억·소상공인 5000만원 대출

구로구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총 7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펼친다.

구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반기 57억원, 하반기 13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융자지원 사업’을 마련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융자지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으로 나뉘어 실시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총 40억원 규모, 대출금리는 연 1.5%로 진행된다. 시중은행협력자금금은 총 30억원 규모로, 대출금리가 연 1.8%를 초과하면 구청이 은행 금리의 최대 연 1%를 보전해준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 모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연 2회) 조건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융자대상은 구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시근

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과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는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소상공인은 10인 미만의 기준이 적용된다. 단, 사업자 등록을 마친 지 6개월 미만인 업체는 제외된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9일까지, 시중은행협력자금금은 매달 초 5일간 접수를 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관련 서류를 구로구청 홈페이지(www.guro.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 구청 지역경제과 860-2865.

〈김유권 기자〉

구로구 ‘어린이나라’ 신규위원 모집

초등학교 4~6학년 50명 ... 3월 12일까지 접수

구로구가 3월 12일까지 어린이나라 신규위원을 모집한다.

‘구로어린이나라’는 어린이들이 직접 헌법을 만들고 가상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 있는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는 사회참여 프로그램이다.

모집대상은 관내 4~6학년 초등학생 50명이다. 타인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자기소개서 등의 신청서류를 받아 작성하고 이메일(yds0439@guro.go.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로구는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 결과를 3월 중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선발된 어린이는 선거, 그룹별 토의,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의회 체험 등의 활동을 한다.

〈한만수 기자〉

주간		구로오늘신문		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55길 51 한성상가 B동 325호 전화 : 02)830-0905 메일 : news121@empas.com	
홈페이지 : http://gurotoday.com 다음카페 구로오늘신문					
회장 : 유희상	발행인 : 김유권	구독료 : 월 5,000원 : 연 50,000원		기사제보 : 02)830-0905	
주관 : 한만수	편집국장 : 채홍길	등록번호 : 서울 다-5105		계좌번호 : 우리은행 예금주 김유권	
1002-347-553475		구독 / 광고문의 010-9096-11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 합니다					

신도림 ‘콜센터’ 서 오류동 ‘해적집’ 까지 집단 감염

구로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지난해 3월 첫 집단감염서 1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대비 621명 늘어난 8만5567명이라고 밝혔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해 11월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후 1000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새해 들어 감소세를 보여 최근엔 300~500명 안팎을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하고, 지역 간 인구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겹치면서 다시 600명대까지 증가했다. 600명대는 지난 달 10일(657명) 이후 38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으로 나타났다.

국내 지역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9명, 인천 16명, 경기 237명으로 수도권이 432명이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는 총 1544명(치명률 1.81%)이다.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조정 적용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영화관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졌다. 수도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났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서 오후 10시까지 유흥업소 운영도 허용됐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구로구 관내 최초 신도림콜센터서 구민 20명 포함 모두 154명 감염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매개체로 시설 종사자가 지목되고 있고, 실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아서다. 코로나19 유행 양상은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이나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감염보다 ‘개인 간 접촉’에 의한 지역사회 감염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갔다. 하지만 대다수 사망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다.

구로 관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퍼진 것은 지난해 3월 8일 신도림동 소재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집단 감염으로부터 시작됐다. 관내 콜센터에 밀집 근무를 하던 전화 상담자들 154명이 감염되면서 구로 구민도 20명이 확진 됐다.

3월 25일에는 관내 구로동 만민중앙교회에서는 ‘지표환자’가 확진된 후 이날 0시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이후 서울·경기 등에서 각각 1명이 추가 확인돼 최소 9명의 확진자로 늘었다. 이어 2명이 더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 11명이 감염됐다. 구민은 10명이 감염됐다.

6월 8일에서 9일 사이에는 가리봉동 중국동포쉼터 거주자의 확진자 발생과 관련해 8~9일 이틀간 진행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자 278명 전원이 음성 판정됐다. 10일 구로구는 이틀간 임시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검사받은 총 인원은 278명이라며 “전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278명 중 155명은 중국동포쉼터 거



지난해 3월 8일 신도림동 소재 보험회사 콜센터에서 관내 첫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전경.

주자들이 예배를 드렸던 교회 신도와 관계자고 나머지 인원은 인근에 있는 쉼터 거주자와 관련 교회 신도 등이다. 이중 구로구 거주 동포는 11명이 확진됐다.

썰렁한 더위가 계속 되던 8월 18일에는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여한

고려해 국내 1호 접촉자로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이나 유명인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요양병원 종사자가 1호 접촉자로 선택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

만민교회, 중국동포쉼터, 미소들요양병원 등 교회-요양원-가족간 감염에 아동서 80代까지 18일 현재 980명, 1천명 육박... 사망자 9명 26일부터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백신 접종

구민 9명이 확진 됐다.

같은 달 27일에는 구로 1동에 있는 A아파트에 집단 감염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환기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서울시 구로구 아파트 관련 환기구를 통한 전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밝혔지만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개봉1동에 위치한 미소들요양병원에서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8시 30분 기준 최소 18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2명이 증상이 있어 검사 받은 결과 15일 첫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이 환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다른 환자와 요양보호사, 직원, 가족 등 전수조사 한 결과 등 모두 1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그중에서 구로구민은 44명이었다.

한편, 구로 구민이 타시군구에 가서 접촉한 확진자도 488명으로 전체 962명의 50.3%나 된다.

□ 26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 백신 접종

방역당국이 오는 2월 26일부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국내 1호 접종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 중인 백신으로 첫 접종이 이뤄진다. 이 백신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요양병원과 요양병원 입소자와 종사자가 투약할 예정이다. 국내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 종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해외 사례를



개봉1동에 위치한 미소들요양병원에서 환자와 요양보호사, 직원, 가족 등 구민 44명을 포함 모두 19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접전담병원 △중증환자치료병상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종사자이다.

□ 완치자들 호흡곤란, 기억력 감퇴, 탈모 등 후유증 겪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각종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완치자들은 호흡곤란, 기억력감퇴, 탈모 등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고위험군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던 코로나19 후유증이 20~30대 젊은 완치 환자들 사이에서도 나타나면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는 코로나19 후유증의 심각성을 인지해야 하며 감염되지 않도록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언했다.

코로나19 후유증은 20~30대 젊은 층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4월 초 터키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고 완치한 이 00(25) 씨는 심각한 탈모 증세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탈모가 없었는데 입원하고 한 달 후부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당시) 하얀 침대가 머리카락으로 덮일 정도로 많이 빠졌고 지금도 집에서 샤워하면 수챗구멍에 머리카락이 많이 들어 가서 배수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20대 여성 코로나 완치 후기(후유증 有)’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자연치유로 37일 만에 음성 2차례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며 “직장까지 그만두고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치료 중 몰랐던 후유증이 일상생활 시작과 동시에 찾아왔다”고 털어놨다. 그는 “조금이라도 무리하면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 갑갑해진다. 코부터 머리까지 울리는 것처럼 두통이 찾아온다”며 “후각 이상 증상으로 음식이 상했는지 판단도 어려워진 음식을 먹고 배탈도 한두 차례 났다”고 말했다.

〈한만수 기자〉

‘2020년도 사회봉사대상’ 한·중다문화깔끔이총연합회 시상

깔끔이봉사·범죄예방퇴치운동·자율방범대·동포사회봉사 활동
유광순 의료생협 강남리즈 성형외과이사장 공로대상 수상



한·중다문화 깔끔이총연합회총괄회는 지난 9일 구로4동 주민자치센터 3층 다목적방에서 구로오늘신문이 주최한 ‘2020년도 사회봉사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한·중다문화 깔끔이총연합회총괄회(총괄회장 김영희, 회장 이흥철)는 지난 2월 9일 오후 1시 구로4동 주민자치센터 3층 다목적방에서 박동웅 구로구의회 의장, 민숙경 구로4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로오늘신문이 주최한 ‘2020년도 사회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상 대상자는 한·중다문화 깔끔이총연합회 이흥철 회장, 최옥 총무, 노순옥 재무, 사단법인 글로벌 범죄예방위원회 전애순 재무, (사)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김명희 여성부회장, 의료생협 강남리즈 유광순 이사장에게 ‘2020년도 사회봉사대상’을 각각 수여했다.

‘봉사의 여왕’ ‘깔끔이 봉사단의 파수꾼’으로 넉넉함이 붙은 다문화환경깔끔이봉사단 총괄회 김영희 회장 휘하에 무단쓰레기더미 동산에 아름다운 꽃동산(무궁화꽃 및 황금 측백나무) 숲을 구로4동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꽃동산을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영희 회장은 교포 밀집 지역인 구로 4동에 2008년 5월부터 거주하면서 어떤 한해는 36회 여러 가지 봉사 해오던 중 2014년부터 다문화 환경깔끔이 봉사단을 조직하여 새벽 별 보고 나가 거리 청소를 하고 저녁 늦게까지 별을 지고 돌아오는 나날이었다. 김 회장은 매일 매일 치워도 다시 쌓여가는 쓰레기 더미를 보면서 몸은 지치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회의를 느낄 때 문득 근본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을까? 고민 하던 중 ‘중국 동포는 해바라기꽃을 좋아한다’는 순간적인 생각이 들어 무단쓰레기투기지역에 김 회장은 5년 전부터 재활용 플라스틱 원형 통에 시멘트를 채워 해바라기꽃(조화)을 심어 쓰레기 동산을 해바라기 동산으로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다. 관내 구석구석 김 회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지난 9월중 늘 무단투기한 쓰레기가 산을 이루 오던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 입구 (남구로시장 입



김영희 회장과 유광순 이사장이 주민들과 중국동포를 위해 마스크를 기부했다.

구)에 민간 사회단체 자체 모금액 2천여원의 경비를 들여 벽돌로 화단을 만들고 흙을 채워 무궁화나무 20년생 백 단심, 16년생 홍단심 7그루와 국화꽃을 심어 아름다운 환경으로 변화 시켰다. 즉 해바라기 조화 꽃 동산을 생화과 무궁화꽃 동산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김영희 회장은 (사)한국범죄퇴



한·중다문화 깔끔이봉사는 한중다문화동포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한마음 한뿌리 어울림 큰마당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한중다문화 깔끔이총연합회 회원들이 함께 나눔을 실천할 전을 부치고 있다.

치운동본부 여성 회장으로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며 본단체 운태한 이사장은 공사 기간중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격려하고 일손을 도왔다고 한다.

민숙경 구로4동장은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관의 예산 지원없이 회원들 십시일반 모금하여 자발적으로 지역사회 환경을 변경시키는 다문화 동포들의 눈물겨운 봉사에 감사하며 이 잔잔한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 쓰레기 없는 나라로 변하게 하는 큰 파도가 되었으면 한다. 이로 인하여 오늘 수상하는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중다문화 깔끔이봉사단에서는 매년 명절 때마다 구로리어린이공원에서 ‘한중문화 소통·배려·화합’이란 슬로건을 걸고 한중다문화동포들과 구로지역 주민들을 위해 ‘한마음 한뿌리 어

울림 큰마당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또한 김명희 총괄회장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과 동포사회를 위하여 구로구청과 동포사회에 마스크 19만장을 기부했으며, 불우이웃을 위해 라면 150박스, 김장김치 5kg 100박스 100가정, 10kg 100박스 100가정(경로당,저소득층가정)에 각각 전달했다”고 전하고 “지난 설에는 동포사회와 독거노인 등 650 가정에 부침이 3장씩과 전을 마련하여 전달하여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생협 강남리즈(이사장 유광순)에서도 2020년도 알뜰바자회를 매월 열어 수익금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담가주기운동, 구로리공원 등 거리청소운동, 불우이웃 돕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김유권 기자>

www.songlimga.com

함께 있어 좋은 날엔 더 좋은 곳에

사랑하는 가족과 맛있는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간

정성 그리고 맛
음식점의 성패는 고객에 대한 마음가짐,
인생의 레시피는 ‘사람과 함께 하는 여정’

정직 그리고 멋
진심이라는 빛과 물을 준 때
마음은 비로소 색을 띄우고 열매를 맺는다

성실의 향기
소나무도 5년이 되어 뿌리를 내리듯,
기다림을 통한 ‘행복한 향기’를 나누는 사람

풍미가 담긴 肉의 名家

송림가 예약문의
02.2066.6000

정통의 맛을 담은 중식 名家

실크로드 예약문의
02.2066.6100

구로문화원 제5대 원장에 이계명 부원장 선출

2월15일 오류아트홀서 제17회 정기총회 개최

구로문화원은 지난 2월 15일 오후 2시 오류문화센터 2층 오류아트홀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5대 원장에 이계명 현 부원장(동구로새마을금고 이사장 겸 구로금천구새마을금고 이사장 겸 협의회장)를 선출했다.

이날 행사는 유영직 구로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준수속 국민예례, 내빈과 임원소개, 2020년도 감사결과 보고에 이어 ▲제1호 의안 :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 임원 선임의 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이계명 원장 외 이사와 감사 선임도 함께 이뤄졌는데 명단은 다음과 같다.

◇원장 : 이계명 ◇부원장 : 홍춘표(전 구로구의회 의장) ◇이사 : 홍순철(한일가스산업(주) 회장, 차광선(진명하이테크 대표, 이호성(위나트 디자인 대표, 구로상공인회 회장) ◇감사 : 최재무(신도림새마을금고 이사장), 정유준.

한편 구로문화원 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선임하며, 원장 임기는 4년으로 1차에 한해 중임할



구로문화원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오류문화센터 2층 오류아트홀에서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5대 원장에 이계명 부원장을 선출했다.



사진 오른쪽부터 이호성 이사, 최재무 감사, 이계명 제5대 신임원장, 최문식 원장, 홍춘표 부원장, 당연직이사 김상재 구청 행정관리국장, 정유준 감사, 유영직 사무국장.

수 있다. 이사는 임기 4년에 연임할 수 있고, 감사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새 문화원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새로 선출된 이계명 원장은 “구로문화원장이라는 직책이 저에게는 과분하다”고 겸손해 하면서 “역대 세분 원장님들의 업적을 더욱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하며 “지난해 코로나19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문화원의 여러 사업이 다시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최문식 3-4대 원장(세일화점(주) 회장)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8년간 각종 다양한 문화강좌를 개설해 현재 연간 1만2천여명의 지역주민이 문화원을 이용하고 있고, 지난 2015년부터 구립도서관 업무를 위탁운영 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한편 이날 행사엔 장동석 한국예총 구로구지회장과 구로문화원 당연직 이사인 김상재 구로구청 행정관리국장, 이재순 문화관광과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채홍길 기자〉

유희상의 열린 칼럼



봄이 오고 있다. 예전에 노인들은 봄을 보내면 또 한 해를 살았구나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봄은 환절기이다. 사람의 생체리듬이 불안정한 시기가 환절기다. 잔병을 안고 사는 노인들로는 불안한 계절이다. 봄이 지나고 다시 한 해가 시작이 되면 가을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인생 살이다.

예전에는 아이가 태어 나서

무렵(2~3세)을 뜻하는 것으로 해야(孩兒)라고 쓰기도 한다. 시인

들이 ‘아해’라고 시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아해’가 아니고 ‘해아’라고 써야 옳다. 나이 15세는 지학(志學)이라

나이가 든다는 것은 ㉑

백수(白壽)가 될 때까지 나이를 칭하는 말이 있었다. 나이를 칭하는 문자를 보면 조상들의 지혜가 얼마나 슬기로웠는지 여실히 알 수가 있다.

아들을 낳으면 농경(弄瓊)이라고 하여 구슬(瓊)장난감을 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아들 낳은 경사를 농경지경(弄瓊之慶)이라고 했다. 딸을 낳으면 농와(弄瓦)라고 칭하며 실패(瓦)장난감을 주었다. 그래서 딸을 낳은 경사를 농와지경(弄瓦之慶)이라고 했다.

2~3세는 제해(提孩)라고 하였다. 제(提)는 손으로 안는다는 뜻이고, 해(孩)는 어린아이란 뜻이다. 아기가 처음 웃을

고 했다. 공자(孔子)가 15세에 학문(學文)에 뜻을 두었다는 데서 유래가 됐다. 육척(六尺)은 주(周)나라의 척도에 1척(尺)은 두 살 조금 지난 아이의 키다. 그래서 6척은 15세를 뜻합니다. 삼척童子(三尺童子)란 말은 세 척이 안 되니까 10살이 채 못된 아이를 일컫는 말이다.

여자 나이 16세를 과년(瓜年)한 나이라고 한다. 과(瓜)자를 파자(破字)하면 ‘八八’이 되므로 2X8=16으로 여자 나이 16세를 말한다. 특별히 16세를 강조한 것은 옛날에는 이 때가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이다.

〈본지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20년 사업 전국평가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좋은이웃들 사업’ A등급 획득

사회복지법인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한기)는 지난해 실시한 ‘좋은이웃들 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평가 결과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A>등급은 전국 117

개 기관 중 39개 기관이 선정됐으며, 서울에서는 구로구를 포함한 2개 기관만 선정됐다.

‘좋은이웃들사업’이란 정부의 복지인력 증원, 통합적인 원스톱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이웃주민과 밀착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운영을 활성화하여 저소득층, 위기가정,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고자 민·관·자원봉사자가 공공의 전



사회복지법인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해 실시한 ‘좋은이웃들 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평가결과 <A>등급을 획득했다.〈구청앞 녹지에 축하 현수막이 걸려있다〉

달체계를 보완하는 민간의 상시지원시스템이다.

구로구 사회복지협의회 김한기 회장은 “2020년 지난해 ‘좋은이웃들사업’은 지역내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약계층 발굴과 외부자원연계 등으로 총 503명 5,38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많은 실적을 올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2021년은 코로나19 등 복지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락처 : 구로구사회복지협의회 02-869-9555 〈채홍길 기자〉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 방문

지역 청소년들 욕구에 부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당부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은 지난 8일, 천왕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천왕동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올 1월 천왕동 14번지 일대에 부지 1,386.6㎡, 연면적 1,885.86㎡,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주요 시설로는 1층에는 북카페, 2층에는 다목적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층에는 동아리실과 목공예·요리·음악 연습실이, 4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갖춰져 있다. 본격적인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시설을 방문한 박동웅 의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이세민 관장, 어르신청소년과 과장과 시설 곳곳을 세심히 돌아본 후 청소년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구로구의회 박동웅 의장이 지난 8일 천왕동에 위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의 운영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세민 관장은 지역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겠다고 시설 운영 계획을 밝혔다.

이에 박의장은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대체 프로그램을 비롯,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의 실질적인 청소년 활동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관계자에게 당부했으며 “관내 청소년 수련시설인 구로2동 구로청소년센터, 공동 구로청소년문화의집과 함께 소통과 공유를 통한 다양한 연계활동으로 청소년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유권 기자〉

2021년洞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총회 개최 제11기 협의회장에 이휘진 가리봉동 위원장 선출

구로구 2021년 제11기 주민자치 위원장협의회 총회가 지난 2월 17일 오전 11시 구청 5층 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 준수 속 관내 16개동 주민자치 위원장 중 15개동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구청 자치행정과 김승제 주민협력팀장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국민의례, 구정 안내, 각동 위원장 소개에 이어 협의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등 임원선출로 진행됐다.

협의회장에는 이휘진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장이, 부회장에는 김영용 개봉2동 위원장과, 김만철 구로5동 위원장이 선출됐다.

감사에는 홍일점인 장예선 고척2동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리고 간사에는 류종수 신도림동 위원장이 선임됐다.

또한 고문에는 박완건 9-10기 협의회장과 김창범 오류1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추대됐다.

한편 제11기 16개동 주민자치위



2021년 제11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총회가 지난 17일 오전 11시 구청 5층 강당에서 관내 15개동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협의회장에 이휘진 가리봉동 주민자치위원장을 선출했다.



이휘진 협의회장

원장은 다음과 같다.

▲ 신도림

동 류종수 ▲

구로1동 김동

우 ▲구로2동

이학범 ▲구

로3동 박용환

▲구로4동 안석성 ▲구로5동 김만

철 ▲가리봉동 이휘진 ▲고척1동

김영학 ▲고척2동 장예선 ▲개봉1

동 이상욱 ▲개봉2동 김영용 ▲개

봉3동 김종배 ▲오류1동 김창범 ▲오류2동 강기영 ▲수궁동 안종태 ▲향동 장광우.

이번 위원장 선출은 16명중 연임 4명, 신임 12명이며 여성은 고척2동 장예선 위원장 1명이다.

신임 이휘진 11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역대 협의회장님의 노하우를 빌려 구로구의 발전과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웰컴금융그룹-(주)하트캐싱대부, 장학금 쾌척 구로구 장학회에 각각 1,000만원씩 기탁

구로구에 본사를 둔 웰컴금융그룹(대표이사 장세영)과 (주)하트캐싱대부(대표이사 손남식)가 지난 9일 구로구 장학회에 각각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날 오후 3

시 구청 창의홀에서 열린 장학금 전달식에서 웰컴금융그룹 박진욱 감사와 손남식 (주)하트캐싱대부 대표이사는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금에 써 달라”며 각각 1천만 원을 이성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이성 구청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학업 하는 학생들을 위해 온정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 자리에는 구로구장학회 이흥복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편 구로구 디지털로 300에 본



구로구에 본사를 둔 웰컴금융그룹이 지난 9일 구로구 장학회에 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사를 둔 웰컴금융그룹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도 구로구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성금 1천만 원씩과 2020년엔 구로구장학회에 미래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

또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23에 본사를 둔 (주)하트캐싱대부도 지난 2018년에 구로희망복지재단에 800만 원을, 2019년과 2020년엔 구로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각각 500만 원의 성금을 기탁한바 있다.

<채홍길 기자>

고사리손으로 한푼 두푼 모은 소중한 성금 기탁

관내 사립유치원 원아들 지난해 저금한 771만6490원 기부

고사리손으로 한푼 두푼 모은 동전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부됐다.

구로구사립유치원연합회(회장 조상수)는 18곳의 유치원 원아들이 지난해 돼지저금통으로 모은 771만6,490원을 최근 구로구에 전달했다.

성금은 구로희망복지재단을 통해 관내 홀몸어르신, 저소득층 주민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정성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며 “소외

되는 이웃이 없도록 구청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관내 사립유치원생들이 모은 성금을 전달하고있다 <사진 왼쪽부터 사립유치원연합회 이시은 감사, 이성 구청장, 조상수 회장, 고미정 총무>

고대 구로병원 비뇨의학과 문두건 교수 ‘대한남성건강갱년기학회’ 회장 취임

고려대 구로병원 비뇨의학과 문두건 교수(사진)가 대한남성건강갱년기학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올해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년간이다.

대한남성건강갱년기학회는 남성건강갱년기 장애의 연구, 교육, 치료 및 예방관리 향상을 위해 1999년 설립됐다.

문두건 신임 회장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기에 따라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남성건강에 관한 학술활동을 활



성화 시키겠다”며 “더불어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남성건강갱년기 국제학술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학회 부흥이라는 커다란 사명감을 갖고 앞으로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유권 기자>

청년 구직자 위한 ‘AI·VR 면접체험관’ 운영

채용환경 변화 맞춰 일자리 토털플랫폼 ‘청년이룸’에 조성

구로구가 ‘AI·VR 면접체험관’을 운영한다.

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이에 새로운 면접 방식에 대한 청년들의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AI·VR면접 체험관’을 오픈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I·VR면접 체험관’은 일자리

토털플랫폼 ‘청년이룸’(구로구 오피로 1130, 천왕역 지하 1층) 내에 조성됐다. 면접실 3개, 상담실 2개를 갖췄으며, 인공지능(AI)과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면접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I면접 체험프로그램은 기본면접, 성향분석, 상황대처능력 측정, AI게임, 심층면접 등 5단계로 구성된다. 기본면접은 체험자의 기본 정보에 대해 파악하는 단계며,



구로구가 코로나19 사태 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새로운 면접 방식에 대한 청년들의 적응력을 높여주기 위해 ‘AI·VR면접 체험관’을 오픈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나머지는 심층면접에 필요한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심층면접 단계에서는 체험자가

AI면접관의 질문에 답변하면 답변 속도, 시선 처리, 말투, 목소리의 떨림 등 언어적·비언어적 요소를 분석하고 체험자의 직무역량과 직무적합도를 평가해준다.

VR면접 체험프로그램은 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모의면접이다. 체험자가 VR장비를 착용한 뒤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분야와 기업을 선택하면 가상의 면접관이 등장해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면접을 진행한다.

면접 후에는 체험자가 복습해볼 수 있도록 면접 과정에 대한 녹화 영상이나 녹음파일도 제공한다.

면접 체험프로그램은 이달 22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매주 화·수요일은 VR면접, 목·금요일은 AI면접을 체험할 수 있다.

구로구 청년이룸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청년이룸 홈페이지(youthroom.kr) 또는 전화(070-4913-4137)를 통해 일정을 확인한 후 예약하면 된다. 문의) 구로구 일자리토털 플랫폼 청년이룸 070-4913-4137. <채홍길 기자>

오류동 ‘해적집 헬스장’ 서 44명 집단감염

구로구 “같은 건물 4개층 24개 점포도 전수 검사”

오류동 헬스클럽인 ‘해적집’에서 18일 현재 4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서 긴장하고 있다.

지난 17일 구로구와 서울시에 따르면 헬스장 집단감염은 시설 관계자 1명이 10일 최초 확진 후 14일까지 33명, 15일 7명, 16일 3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44명으로 이중 구로구 확진자는 34명이다.

해당 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 포함 총 394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43명, 음성 334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확진자는 시설관계자와 이용 회원, 회원 가족 등이다.

구는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소독을 완료하고 폐쇄명령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와 구로구 보건소는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시설 이용자를 파악해 검사받도록 안내 문자도 발송했다.

또 헬스장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오류동 ‘해적집 헬스클럽’ 4층 건물과 내부.

24개 점포 입주자와 방문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접촉자를 확인·분류했지만 1일부터 10일 사이 방문자 가운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사람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 방역당국은 2월 10일 시설 관계자가 최초 확진된 후 회원 등으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용자 평균 체류시

간이 1시간 이상이며 과격한 운동으로 침방울이 발생하고 샤워장, 탈의실을 공동사용 함으로서 이용자들에게 전파된 것으로도 추정하고 있다.

해당 해적집 헬스장 대표는 이날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진자가 나오게 되어 죄송하다”며 “아무리 방역에 힘을 기울여도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모르는 이상황이 저도 답답하다”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 <채홍길 기자>

서울시 ‘거리두기 2단계’ 28일까지 시행

음식점 등 밤 10시까지… ‘5인 모임 금지’는 그대로

서울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 중이다.

이번 2단계 조치로 지하철 운행은 2.5단계 때보다 15회 늘어난다. 시내버스의 경우 874회 증회 운행된다.

또한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은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면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은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완화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밖에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다만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방역수칙인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목욕장업은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도 유지한다. <한만수 기자>

구로역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구로구가 기존 신도림역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로역 북측광장에 새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지난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구로구가 구로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구는 기존 신도림역 임시 선별검사소의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구로역 북측광장(3번 출구)에 새로 임시 선별검사소를 마련하고 지난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구로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일요일은 구로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이

용하면 된다.

구로구는 의료진과 검사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해 차량형 검체부스로 검사를 진행한다.

김영렬 보건행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는 양상이지만 무증상 감염 비율이 높아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며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1가구 1명 검사’ 등 선제검사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류동역 임시 선별진료소는 이달 19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채홍길 기자>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가동

주민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결사 반대” 등 강력 반발

서울시, 16일부터 강남 ‘느루요양병원’ 과 2곳 운영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목을 집중 시켰던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의 202병상과 강남구 느루요양병원 68병상 등 총 두 곳이 서울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 요양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전 구로구보건소 의과과장)은 17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16일 기준으로 강남 느루요양병원과 구로 미소들요양병원

이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느루요양병원 병상은 총 68병상 중 23병상을 사용중이고, 미소들요양병원은 총 202병상 중 3개의 병상에서 환자가 치료중이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지난해 말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코로나에 감염된 환자들만 모아 치료하고 돌보는 요양대상자 전용 병원이다.

한편 미소들요양병원 운영복 병원장이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자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개봉1동 미소들요양병원 인근 주택가와 골목에는 주민들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결사 반대” 등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호 감염병 전담요양병원으로 강남구 ‘느루요양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병원은 16일부터 68병상 규모로 운영되며 느루요양병원 측이 전담 요양병원 선정에 자원했다고 밝혔다.

<채홍길 기자>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 20일 개최

오후 5시부터 유튜브로 송출 ... 3부 걸쳐 밴드 공연 중계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온라인 라이브 공연 ‘집으로 배달’ 콘서트를 개최한다.

구로구는 “현장 콘서트가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공연을 즐기며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집으로 배

달’ 온라인 콘서트를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으로 배달’ 온라인 콘서트는 20일 오후 5시부터 3부에 걸쳐 진행되며 구로F페스티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송출된다.

가수 서영주가 소속된 너드커넥션을 비롯해 일렉트로닉 팝 밴드

플랫폼 스테레오, 한국적 가락을 섞은 ‘조선록’을 들려주는 아시안 체어샷 등 실력 있는 밴드들이 출연해 다양한 공연을 펼친다.

구로구는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할 수 있는 비대면 팬미팅 이벤트도 마련한다. 공연에 앞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참여 사진 접수를 받아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4명을 선정했다. 당첨자는 공연이 끝난 후 원하는 밴드와 영상통화의 기회를 갖는다. <김유권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클린공단 캠페인’ 전개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지사장 류준식)는 지난 2월 9일 개봉역에서 설명회를 앞두고 ‘클린공단 만들기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사진>



건강보험공단은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1등급을 차지하여 6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최상위기관(1위)을 달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협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21년도 달라지는 정책들’ 등 리플렛 및 홍보물을 출근길에 배포하며 공단의 제도 홍보에 앞장섰다. <김유권 기자>

조운주 시집 '나에게 시가 되어 오는 사람이 있다' 출간

1, 2, 3부로 80여편 주옥 같은 시... 출간부터 화제

시의 순기능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서사시로 때로는 서정시로 알게 모르게 혼탁한 영혼을 정화시킨다.

그래서 사람들은 맑은 수혈을 위해 시집을 찾는다. 그러나 막상 시집을 손에든 순간 난해하고 얼키고설킨 어둠의 이미지로 오히려 길을 잃는다.

시에 장식이 너무 많다. 기술만이 난무한 시들이 판친다. 신춘문예의 난해한 특성 때문이다. 개성을 잃은 시인들이 신춘문예 품으로 유행을 따른다. 그래서 세상에 시는 넘치지만 좋은 시를 만나는 일은 어렵다.

다행히 이러한 시들이 독자들에게 시를 멀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시의 흐름에 맞서는 작가가 있다.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9년 만에 시집을 출간했다.

서정과 시의 본질은 살렸으면서도 결코 진부하지 않고 난해하지 않다.

시를 읽으면 자연적으로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함께 시속의 화자가 되어 마음이 출렁인다. 독자들



의 갈등을 풀게 만드는 묘한 매력을 가진 오아시스와 같은 시다. 시집 한 권의 반은 달콤한 사랑시다. 도서출판 오늘에서 출간된 이 시집은 1부 꽃잎 봄 하나를 열고, 2부 꽃잎 봄 하나의 중심에 서서, 3부 꽃잎 봄 씨를 품은 봉투가 되어로 나뉘어졌으며 80여 편의 주옥같은 좋은 시가 수록되었다.

시의 소재는 꽃과 나무 등 자연을 통해 삶을 반추하게 만든다. 친 자연주의다.

시 편 편을 읽다보면 코로나 여

파로 지친 마음은 사라지고 사춘기 소년소녀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삶의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자화상을 만나기도 한다.

그러나 슬픔이 단단해지면 계단이 되든가. 시를 따라가다 보면 맑은 태양 아래 흰구름이 되어 두둥실 가벼워진 자신을 만나게 된다. 어느 페이지를 읽어도 좋다. 독자들을 울리기도 하고 맑게 만들기도 하는 천부적 재능을 가진 시인이라 말아 아깝지 않다.

조운주 시인의 6번째 시집 '나에게 시가 되어 오는 사람이 있다'는 크게 나누어 사랑시와 삶의 현장에서 녹아낸 자유시며 142쪽으로 엮였다.

시인이며 수필가인 이주리 작가는 "조운주시인은 작품마다 눈부신 알레고리를 가지고 있다. 시인 특유의 독창적인 사물의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고 그 입구에서 서성이지 않고 그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생의 유동적인 통찰과 경견을 건져 올린다. 마치 우주에 던져진 기호들을 따서 지상에 퍼즐처럼 쌓아 가는데 그 깊이와 정교함에 감동이 있다" 했다.

시 해설을 맡은 류재엽 평론가는 "조운주 시인은 예술적 효과를 창조하는 중심 의도를 긴밀하게 배치하고 세부와 세부 전체 간에 유기적 관계를 토대로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언어 선택을 자유자재로 하고 있다"며 "그녀의 시는 다분히 매력적이다. 늘 깨어 있으려고 발버둥 친다. 그렇게 무게와 의미를 지닌 등가성의 산물을 창조하려는 자세가 돋보인다"고 했다.

이번 시집에서 특징적인 것은

초대시

등근 저녁

시인 조 현 순



다 늦은 밥상에 별자리 둘러앉았다
상처로 찢고 박히는 말들
모나고 베져나온 밍상 얼굴도
외롭지 말라고 등글에 썰어 넣는다
섞일 것들은 눈빛만 마주쳐도 한통속이다
그래, 혼자 남아서 따로 놀 이유 없다

시퍼렇게 무른 맨살 내어주는 시금치처럼
눈 흘기며 시기하는 마음 한 접시
몸 안에 가득 밀어 넣으며
사각사각 깨물어 준다

찬이 좀 섭섭하면 또 어쩐가,
허기로 둘러앉으면 체온 올라가는 밤상
레시피는 따로 없다
술가락 부딪히는 소리, 몸에서 등근 달 구르고
뒷산 동백나무가 어둑어둑 꽃망울 터트리며
동그랗게 익어가는 저녁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아내는 덧셈 뺄셈은
처음부터 몰라도 된다

인다라 구슬이 따로 없다?

- 한국예총(예술세계)시등단 한국펜클럽회원
- 현)예술시대작가회회장
- 현)글마루 6대회장
- 현)고양문협사무국장
- 동서커뮤니케이션상수필부문입상
- 시집(얼음의 몸살)

시에서 최대한 힘을 뺐다는 것이다. 불필요한 장치를 빼고 시의 알레고리를 잘 살려냈다는 평가다.

저자인 조운주 시인은 "꽃을 볼 마음으로 꽃을 심었으나 꽃은 피지 않고 무심코 버들가지를 꽃앰더니 나무 그늘을 이루었다는 중국 속담처럼 꽃을 탐낸다고 해서 꽃이 내게 오는 것은 아니다. 나무가 꽃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수록된 시(詩) 대부분이 목마르거나 간절한 것들의 찰나가 조각이 되고 퍼즐

이 되어 완성된 것들이다"이라고 했다. 그래서인지 그녀의 말처럼 억지로 짜내지 않고 물 흐르듯 담백한 시로 귀결된다.

●시집 『나에게 시(詩)가 되어 오는 사람이 있다』의 저자 조운주 시인은 1999년 예총 기관지인 《예술세계》를 통해 등단했다. 20여 년 동안 기자생활을 했으며, 현재는 플로리스트의 삶을 살고 있다. 『미완성의 노래가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그 사랑에 눈을 떴지 마』 『새살 돋는 사랑의 성』 『사랑은 영혼이 주인이다』 『꽃똥』 등 다섯 권의 시집을 펴낸 바 있다. 등단 22년 동안 끊임없이 시발을 기르고 키우는 시농부다. <김유권 기자>

60~65세 취업 원하시면 전화하세요

(경비/청소등 전문 무료 알선 가관)

100세 시대... 아직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고...

과연 나에게 맞는 일자리가 있을까?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는 60세 이상 구직을 원하시는 분에게 무료로 취업상담 및 구직 알선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지금 전화 또는 방문해 주세요.

○준비서류 : 이력서 ○접수방법 : 방문접수(월~금 09:00~17:00)

(사)대한노인회 구로구지회 취업센터

구로구지회 (신도림역 2번출구, 02)852-4598)

서울시 구로구 새말로 18길39, 1층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협력과 연결의 공익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합니다.

공익활동에
대한
지지와 존중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공익활동가 레벨-업 캠퍼스
공익상담소

공익활동가 재충전
나와 너를 만나는 오후2시
진짜 휴가

공익단체 인프라 지원
모두의 공유플랫폼

공익활동을
통한
가치확산

공익활동 홍보 활성화
'공익활동해봤구로?' 페이스북

네트워크 활성화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
신나는 공익X작당

신규 활동가 육성
공익오디세이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

공익활동 조사/연구
자세히 보다

공론장 운영
모두의 공론장

블로그 bit.ly/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페이스북 bit.ly/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페이스북

전화 02-3666-0348

공익활동가 레벨-업캠퍼스

공익활동가 실무역량 강화교육

강 연 일 정

제1강 3/11(목) 15:00~17:00	지역의제 발굴부터 실행까지 시민교육 결 - 권혜진 상임연구원
제2강 3/18(목) 15:00~17:00	지역의제 발굴을 위한 공공데이터 활용법 - 정보공개센터 정진임 소장
제3강 3/25(목) 15:00~17:00	지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효율적 도구 '디자인씽킹' 알아보기 - 지속가능연구소 김민석 소장
제4강 4/1(목) 15:00~17:00	비영리홍보 모금의 노하우 - 플랜아더 이상미 브랜드 마케팅팀장
제5강 4/8(목) 15:00~17:00	비영리모금/사회공헌 제안서 작성법 - 김재춘 가치융합경영연구소 소장



* 본 강의는 온라인 오프라인 / 온라인(ZOOM)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문의: grgongik@naver.com / 02-3666-0347
신청하기: bit.ly/레벨업신청



신청하기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